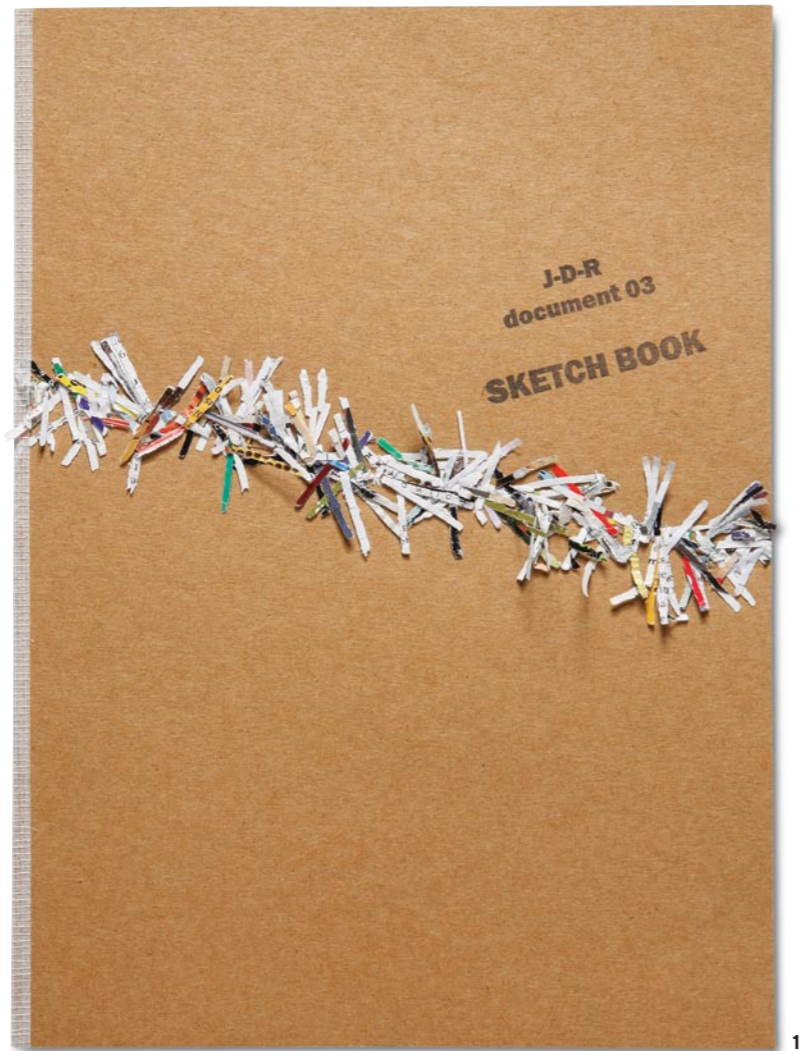


# 11명의 그래픽 디자이너가 원본성을 따져 묻다 진달래 도큐먼트 03: 스케치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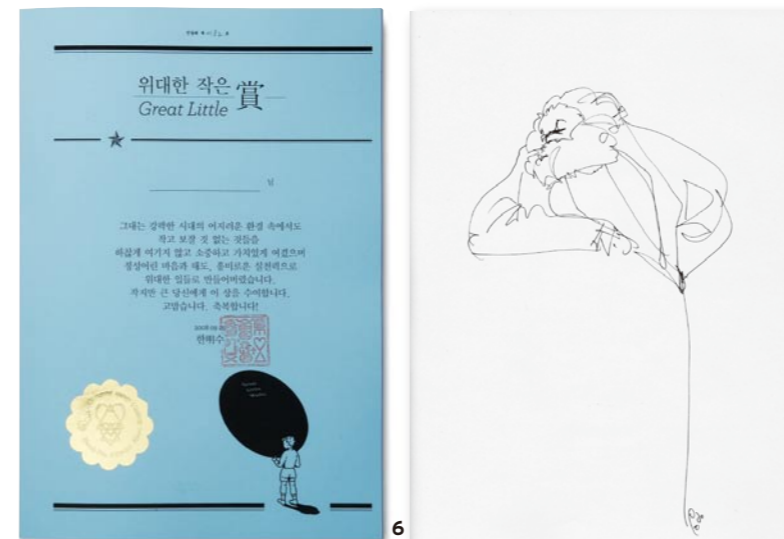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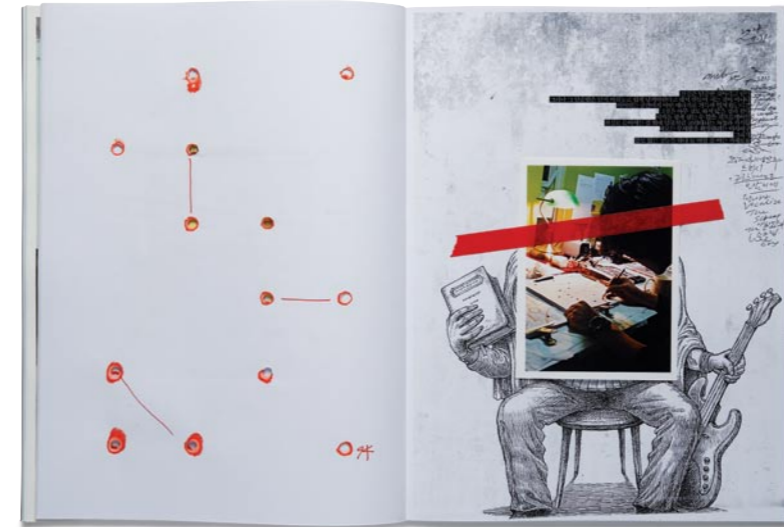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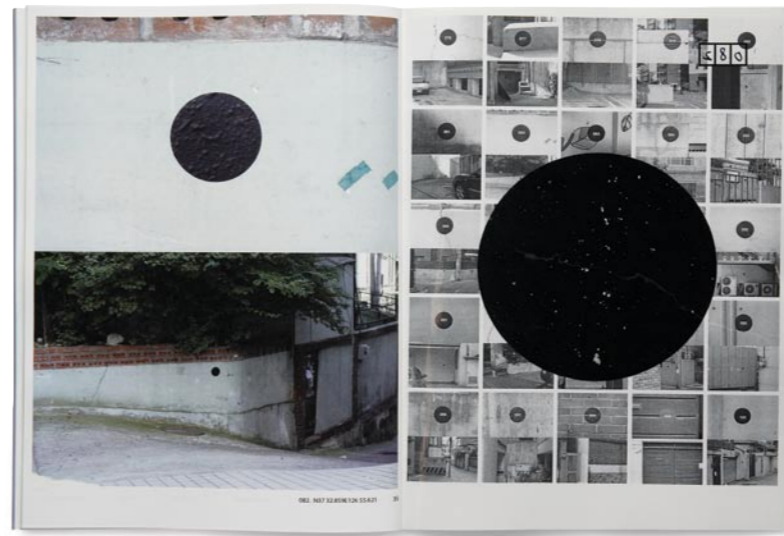
〈진달래 도큐먼트 03: 스케치북〉은 시각 디자인 그룹 진달래 동인들이 펴낸 세 번째 책이다. 학계와 업계에 속해 있으면서도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제3의 활동을 추구하는 11명의 디자이너(김경선, 김두섭, 김수정, 김재훈, 민병걸, 이관용, 이기섭, 조현, 최병일, 최준석, 한명수)가 엮은 100부 한정판이다. 이들이 따져 묻고 싶어 한 것은 바로 원본성이 지닌 의미다. 자동으로 돌린 로또가 한 장씩 붙어 있고, 일일이 직접 그리고, 복사하고, 칼로 파낸 것이 분명한 〈진달래 도큐먼트 03: 스케치북〉의 모든 페이지는 온몸으로 결코 같은 것이 존재할 수 없는 원본임을 증명하고 있다. 예술 작품마저도 진품 여부를 전문가의 의견이나 증명서로 결정하는 이 시대에 디자이너의 손끝에서 완성된 한 권의 책을 통해 원본성의 의미를 질문하고 싶었던 것. 〈진달래 도큐먼트 03: 스케치북〉의 편집장을 맡은 김수정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는 ‘스케치북’을 주제로 삼은 것에 관해 “스케치북은 예술가, 공예가, 디자이너, 건축가 모두가 작품을 구상할 때 처음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기록하는 비공식 이미지의 기록이다. 이번 진달래 도큐먼트는 수작업으로 소량 생산한 책을 통해 공식과 비공식, 예술과 디자인, 원본과 복사본 사이의 어떤 지점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평면을 다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답했다.

1994년 그래픽 디자이너 김두섭, 이기섭의 주도로 ‘시각 문화 실험 집단’을 표방하며 결성한 진달래는 ‘뽀’ ‘대한민국 포스터 발송’ ‘호호’ ‘방어’ 등을 주제로 수차례 전시와 개별 작업을 진행하며 디자인계 한편에 자리를 만들어왔다. 초기에는 포스터를 주 매체로 활용하면서 다양한 작품을 선보여 온 진달래는 이러한 순수 ‘창작’ 활동을 각자 생업으로 삼고 있는 상업 디자인의 한계를 극복하는 돌파구로 삼아왔다. 진달래의 초창기 시절엔 직업도 없던 20대 중·후반의 대학(원)생이자 비주류였던 이들은 15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이 되었으며, 안정된 직업을 갖고 나름대로 디자인계에서 중추적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그간 박명천, 백종용 등 잘나가는 CF 감독, 일러스트레이터, 작가 등 많은 디자이너들이 이곳을 거쳐 가기도 했다. ㉔

글: 전은경 기자



1 〈진달래 도큐먼트 03: 스케치북〉, 홍디자인, 25만 원. 진달래 동인들은 지난 2005년부터 ‘진달래 도큐먼트’라 명명한 새로운 형태의 ‘전시’ 시리즈를 시작했다. 진달래 도큐먼트는 전시를 출판 형태로 옮겨 온 실험적인 전시 방식으로 매년 다른 회원이 기획자(편집장)가 되어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진달래 도큐먼트 01: 시나리오〉는 민병걸 서울여대 디자인학부 교수가, 〈진달래 도큐먼트 02: 觀集 금강산〉은 김경선 서울대 디자인학부 교수가 편집장을 맡았다. 2 최병일 작품. 각 페이지는 100군데의 무작위적인 장소의 위치, 사진, 그리고 스티커 뒤에 붙어 있는 이름 모를 여러 가지 실존적인 이물질 및 흔적을 담고 있다. 3 최준석 작품. 지도 위의 상상의 도시들을 찾아 쉽게 지우고 그려갔다. 4 이관용 작품. 그래픽 디자이너로 살면서 느끼는 불안함과 반성과 체념의 부스러기들을 스케치북에 남아내려고 했다. 온전하지 않지만 적어도 무가치하지 않은. 5 김수정의 ‘노이즈 페인팅’. ‘떨린 노이즈 합수’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만든 이미지로 마치 가는 색연필로 일정한 간격의 선을 그어간 것과 흡사한 효과를 냈다. 6 한명수의 ‘생활 상징’. 마음에 드는 상징이 있으면 빈칸에 이름을 적어 칼로 자른 뒤 주면 되고, 자르기 아까우면 마음에 드는 상징을 골라 빈칸에 들어갈 만한 사람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된다. 7 김재훈 작품. 모든 책에 들어간 일러스트레이션을 직접 그렸다.



INTERVIEW | 김수정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책이라는 형식은 각자의 작업을 하나로 엮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싶었으나 결과적으로 너무 많이 만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창조자로서 자유롭게 표현해 보고자 했지만 사용자 관점에 대한 고민의 습성이 남아 있는 것을 느꼈다. 물론 각자 작품을 제작하느라 힘들었을 것이다. 진달래 회원 한 명이 한 권의 책에 넣은 작품 수가 평균 10점이고 100부를 찍었으니 각자 1000여 점의 작업을 나에게 보내는 셈이다. 모두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디자이너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단한 노력과 열정이었다. 최준석 회원이 다음 편집장을 맡기로 했다. 아마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짜내느라 고민이 많을 것이다. 그 이후 편집장의 순서도 얼마 전에 정했는데, 아마도 나 같은 속도로 진달래 도큐먼트를 내면 마지막 편집장은 그 역할을 할 기회가 과연 올지 모르겠다.”

